

더 친숙한 콘텐츠로 시민에 가까이

ACC재단, 올 공연·전시 계획 발표
애플·유럽서 연극 소개·전시 진행
클래식·서커스·특별전 등 풍성
매일 마지막주 브런치콘서트도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재단은 대중성, 화제성 높은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설립 4년차에 접어든 ACC재단은 지난 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관람객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ACC재단이 최근 올해 공연, 전시 및 문화상품 계획 등을 발표했다.

재단은 그동안 구축한 콘텐츠 유통 채널을 확대해 지역과 아시아, 세계를 잇는 유통 플랫폼 역할을 공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주요 문화예술 축제와 문화기관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미디어아트 등 ACC 콘텐츠의 유통을 확대한다.

이와 맞물려 일본 베세토 페스티벌에서 ACC 창작작 연극 작품을 소개하고, 콘텐츠 '아쿠아 천국'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ACC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잡은 브런치 콘서트는 올해도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오전 11시)에 펼쳐진다. 다양한 장르의 인기 출연진을 만날 수 있다.

고품격 클래식 공연인 '슈퍼 클래식'은 카메라타 RCO를 비롯해 백건우 등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선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공연을 선사하는 'ACC 초이스'도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다. 이번에는 현대 아트서커스 경계를 넓히고 공존하는 법을 서커스 안무로 표현한 호주 Gravity & Other Myths가 '더 펄스'로 관객을 만난다.

'ACC 슈퍼클래식'도 기대되는 콘텐츠다. 오는 7월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멤버로 구성된 제임버 앙상블 '카메라타 로열 콘



ACC재단은 올해 대중과 친숙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호주 Gravity&Other Myths의 '더 펄스'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빅도어시네마 장면. <ACC재단 제공>

세르토 헤바우'가 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른다.

올해 16회차를 맞은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온다.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도 눈길을 끈다. 뉴욕 유대인박물관 컬렉션을 토대로 국내 최초 추상 표현주의를 조명하는 '뉴욕의 거장들'은 전시에 대한 안목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특별전시 '판타지 인벤토리'도 만날 수 있다. ACC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전시 주제는 '모두의 전당'. 지난 10년간 어린이문화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기억과 물품을 모티브로 다양한 예술가들이 재해석해 콘텐츠로 구현한다.

ACC재단의 대표 공간인 어린이문화원도 다채

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에게 첫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난생처음 시리즈'를 비롯해 어린이 가족 대상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 11'도 마련했다. 또한 재단은 밀크티로 유명한 카페 진정성과의 협업을 통해 아시아 전통차를 접할 수 있는 'ACC×진정성 티세트'를 비롯해 10주년 기념 ACC CI 브랜드 상품, 공간의 특징을 살린 시리즈 상품도 선보인다.

김선옥 재단 사장은 "ACC 개관 10주년과 재단 설립 4년차를 맞아 올해도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예술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맞춤형으로 즐기는 '전통 연희놀이'

전통연희놀이연구소 '겨울 연희 마당' 21일까지 진행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 실력별로 전통 연희놀이를 즐기는 맞춤형 클래스가 열린다. 숙련자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입문자는 전통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다.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대표 정재일)가 '2025 겨울 연희 마당'을 오는 21일까지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연습실, 문흥초 강당 등에서 진행 중이다.

먼저 17-19일은 정재일과 함께하는 '사자, 팔복중놀이 워크샵'이 연희놀이연구소 연습실에서 열린다. 사자탈춤과 팔복중놀이(막춤을 입고 추는 춤)를 배우는 자리다.

정대표는 1999년부터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송인우(강령탈춤 이수자)에게 사사받고,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공연을 만들어 왔다.

오는 20일에는 조요한과 함께하는 '버나 입문자 원데이클래스&워크샵'이 문흥초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돌리기의 올바른 자세부터 각종 버나사위 기술 등을 알려주며 제60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조요한이 강의를 맡는다.

21일 '죽방울 입문자 원데이클래스&워크샵'에는 이학인 강사가 함께한다. 2017년 한국저글링협회 죽방울 세계 오래돌리기 신기록 보유자인 이



'정재일과 함께하는 사자춤 워크샵' 진행 장면.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제공>

씨는 미국 워싱턴DC 한인타운에서 초청공연을 펼쳤다. 이밖에도 2019년 중국 창슈시 세계 죽방울 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정재일 대표는 "2021년을 시작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진행해 온 워크샵은 지역사회에 전통문화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라며 "놀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비전하에 모든 연령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버나, 죽방울 숙련자 각 5만 원(입문자 2만 원), 소리, 노승좌, 함미, 사자, 팔복중놀이 각 15만 원. 네이버폼 신청.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이상문학상 대상' 예소연 작가

'그 개와 혁명' 운동권 세대 아버지와 페미니스트 딸 그려

제48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예소연(33·사진)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그 개와 혁명'이다.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다산콘텐츠그룹 산하 출판브랜드 다산북스는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수상작과 선정 배경을 발표했다.

'그 개와 혁명'은 1980년대 학생운동 세대인 아버지 태수와 2020년대 페미니스트 청년 세대인 딸 수민이 독특한 방법으로 의기투합하는 과정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수상작을 "이데올로기를 압도하는 혁명적 사랑"인 동시에 "가히 혁명적인 포용의 서사"라고 평가했다.

예소연 작가는 "우리의 삶에 좀 더 유연함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다"며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읽어온 이상문학상의 영광을 누리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수상작에 대해 "아버지가 아플 때 어찌할 줄 모르고 동통거렸던 제 모습이 일견 담겨있어 부끄럽고 슬프게도 느껴지는 소설"이라며 "결국은 사랑이 전부가 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혐오와



미움이 도사려오 사랑으로 그것을 부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예 작가는 2021년 문예지 '현대문학' 신인 추천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사랑과 결함', 장편소설 '고양이와 사막의 자매들'을 발표했다.

제13회 문지문학상, 제5회 황금드래곤문학상, 제25회 이효석문학상 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올해 이상문학상 심사 대상은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문예지에 발표된 중·단편소설 300여 편이었다. 우수작으로는 김기태 '일렉트릭 픽션', 문지혁 '허리케인 나이트', 서장원 '리틀 프라이드', 정기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최민우 '구아나' 등 다섯 편이 뽑혔다. 상금은 대상 5000만원, 우수상 각 500만원이다. /연합뉴스

광주시립예술단 운영실장 공모

26일~28일까지 신청...공연·행정업무 전반 담당

광주시립합창단, 극단의 공연 및 행정업무 전반을 맡게 될 단계별 운영실장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운영문·전당)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운영실장 공개모집 공고'를 지난 14일 게시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며 이메일 또는 직접제출, 등기우편 접수 가능.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소유자로 공연·예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며,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에서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지원 불가하다.

3월 12일(오후 2시) 전당 관리동 회의실에서 실기(PT) 및 면접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3일에 예정돼 있다.

최종합격자 처우는 비상임단원이며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및 광주광역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이 적용된다. 근무지(근무단체)는 전당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순환보직) 가능하다.

지원자는 이력서, 응시원서 등을 비롯해 직무수행계획서(자유서식) 1부를 제출할 수 있다. 예술단 운영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단원 간 갈등 발생 시 실장 역할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운영문 전당장은 "시립예술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1년여 간 공연과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적임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